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0권 제3호(2004) 554-567

근대 독일 지역지리학의 성립과 발달과정

안영진* · 김상빈**

A Study on the Regional Geography in Germany before 1945

Young-Jin Ahn* · Sang-Bin Kim**

요약 : 1980년대 이후 지역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방법론적 쟁점을 비롯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커다란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특히 근대 지리학의 형성과 발달에 지대하게 공헌한 독일 지리학계의 지역지리학을 검토하는 것은 지역지리학의 성립과 발달과정, 그 학문적 성격과 지리학 내에서의 위상,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른 지역지리학 연구의 한계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파악하는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 지역지리학의 성립과 전개과정, 그리고 이와 결부된 지역지리학의 성격과 이론적·방법론적 쟁점들을 설명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지역지리학은 독일 전통 지리학의 중심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는 엄밀한 학문 논리에 기초하기 보다는 지리학적 연구 성과의 대중화라는 성격을 띠는 동시에, 초기의 자연지리학에 기초한 내용구성에서 점차 탈피하여 인문지리학적 접근방법을 강화시켜 나아가 있었다. 이에 제1, 2차 대전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는 독일 지지학의 전성기로서 수많은 지지서가 출간되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헤트너의 지지도식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지지서술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경관학적 지지가 가시화되고 있었다.
주요어 : 독일, 지역연구, 지역지리학, 연구동향, 이론적 이슈

Abstract : Since the 1980s, the academic interests on the regional geography have been renewed. This trend is usually called 'Renaissance' of the regional geography. Given this context, to explore diverse theories and methodologies in the regional geography is of much significance. Particularly, to examine the regional geography in Germany widens the understanding of not only the history, strength, and weakness of the regional geography, but also the discipline's status in the field of geography. This paper discusses the regional geography in Germany before World War II, focusing on varieties of theories and methods as well a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German regional geography. This discussion may well be significant in that 'Laenderkunde' became an important paradigm in the discipline of geography in Germany during the pre-World War II period.
Key words : Germany, Regional studies, Regional geography, Research trends, Theoretical issues

1. 서 론

1980년대 이후 선진 제국의 지리학계를 필두로 지역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고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로 일컫고 있다(Gilbert, 1988; Pudup, 1988; Johnston, 1990; Hoekveld et al., 1994; Holmen, 1995; Claval, 1998).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학문적 흐름에 따라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논설이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판적 안목을 갖고 지역지리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도 행해지고 있다(유우익, 1986; 서태열, 1989; 손명철, 1994; 김종규, 2000).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지리학의 본질과 방법론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며, 지역지리학적 연구관점에 입각하여 특정 또는 복합지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한 논저도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안영진, 2002; 손명철, 2002).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지리학 연구가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척도의 단위 공간에 대한 정치사회적 정보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인간의 생활공간에 대한 논리적 이해와 체계적 설명이라는 지리학 고유의 학문

*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jahn@chonnam.ac.kr)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sangbinkim@empal.com)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서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박영한, 1987; 김종욱, 1994; 이전, 1998; 이희연·최재헌, 1998; 김종규, 2000; 최병두, 2002). 물론 이를 위해선 지역지리학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형식의 그리고 현실적 상황조건에 적실한 지역연구로 강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학리적 성격과 개념구성, 접근방법, 그리고 연구의 형식과 틀 등에 관한 폭넓은 논의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진 제국의 지역지리학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학문적 쟁점은 물론이고, 그 연구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근대 지리학의 형성과 발달에 지대하게 공헌한 독일 지리학계의 지역지리학 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지역지리학의 성립과 전개과정, 그 학문적 성격과 지리학 내에서의 위상,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른 지역지리학의 한계와 동시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일 지리학은 19세기 이래 '地誌'[1]라는 한 시대를 풍미한 지리학 패러다임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으며, 또한 전후 공간 분석적 신지리학의 흐름을 주도한 영미권이나 스칸디나비아권과는 달리 1960년대 후반까지 지역지리학을 비교적 굳건히 견지해 왔다(안영진, 2003). 더군다나 독일 지리학계는 1970년대 이후에도 전통 지역지리학에 대한 거센 비판과 폄하 속에서도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지역지리학적 논저를 꾸준히 출간해 오고 있다(Stewig, 1979; Wolf, 1994; Bahrenberg, 1996; Wood, 1996; Blotevogel, 1997). 이런 맥락에서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여 신지역지리학을 둘러싼 새로운 이론적 논의와 지역지리학의 재흥에 대해 독일 지리학계는 한편으로 당혹감을, 다른 한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마저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tiens, 1996; Wood, 1996; Wirth, 1998).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독일 지리학의 동향을 논의하면서 지역지리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박동원, 1978; 김상호, 1983; 김재완, 2000; 권정화, 2001; 김상빈, 2003), 독일 지역지리학의 발달과 그 방법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글은 현대 독일 지역지리학을 검토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여 독일 지지학의 성립과 전개과정, 그리고 이와 결부된 지지학의 성격과 이론적·방법론적 쟁점들을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2] 여기에서는 독일 지역지리학의 성립과 연구동향, 그리고 그 전개과정에서 부각된 다양한 쟁점과 논리체계를 학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근대 독일 지역지리학의 성립: 제1차 세계대전 이전

1) 지역지리학의 성립 배경과 성격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독일의 지리학은 프랑스와 영국 등의 인접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타학문 분야에 비해 뒤늦게 대학에 자리 잡았다. 따라서 일천한 '강단'(講壇) 또는 '아카데미'(academy) 지리학은 일차적으로 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에서 인접 분야들과 경쟁하는 동시에, 내적으로 통일된 학문체계를 정립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당시 대학에 지리학 분야를 정착시키는 데에는 '대중'(大衆) 또는 '아마추어'(amateur) 지리학자들이 적잖은 역할을 했다. 특히 19세기 초반 이래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지리협회'(geographical society)가 그 핵심 기관이었다(권용우 등, 2001). 하지만 독일에서는 프로이센이 주도한 통일 제국이 등장하면서 지리학이 다수의 대학에 새로운 교수분야로서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국가적 관점에서 본 지리학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프로이센 지배 하에 있던 대학들을 시발로 하고, 뒤이어 1890년대에 들어서서 바이에른 등 남부 독일에서 대학 내의 유사 학문분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리학 강좌의 개설이 크게 확산된 것은 지리학자들의 독창적이고 괄목할 만한 학문적 성과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우선은 국가의 입장에서 본 지리학의 실용적 필요성(군사 및 해외 식민지 개척과 무역)과 교육적 목적(지리교사의 양성) 때문이었다.

독일에서는 자연히 훔볼트(A. von Humboldt)와

리터(C. Ritter) 사후 지리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드물었기 때문에, 당시 대학 교수로 초빙된 사람들은 타 학문분야를 공부하였거나 지리학과 다소 무관한 직업을 가진 독학자들로 충원되었다(Birkenhauer, 2001). 우리에게 생소한 학자들도 있지만 당시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수학자였던 바그너(Hermann Wagner)와 게를란트(Georg Gerland), 고대사가였던 키퍼트(Heinrich Kiepert), 파르취(Joseph Partsch), 노이만(Carl Neumann), 지질학자 출신의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과 크레트너(Rudolf Credner), 약사이자 동물학자이며 외국 특파원을 역임한 라첼(Friedrich Ratzel), 법률가이자 출판가였던 페쉘(Oskar Peschel), 지구물리학자였던 최프리츠(Karl Zoeppritz) 등이었다.

그런데 19세기 말까지 대학 교수로 몸담았던 당시 지리학자들은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탐험여행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Wirth, 1988). 19세기를 거치면서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지표공간의 자연현상과 다양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에 관해 거의 폭발적인 양상으로 확대된 여행관찰의 결과로, 1850년대 이후 통일된 형태의 자료기록 및 정리작업이 문제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와중에 이들 성과를 담아내는 일련의 잡지들이 창간되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에 창간된 잡지 중 하나인 '페터만스보고'(Petermanns Mitteilungen, 1855)는 짧은 시간 안에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물론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지구 전체와 관련된 내용적 스펙트럼은 일천한 강단 지리학의 지침으로 작용하고, 또한 지리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당시 지리학은 '일반지구과학'(Allgemeine Erdwissenschaft)으로 규정되고 있었다. 지리학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지질학적·지구물리학적·기상학적·생물학적·민속학적·역사학적·인구학적·경제학적 주제 등을 포괄하고 있는 극히 다양한 학리의 복합체로 인식되고 있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우후죽순처럼 창설된 지리협회의 활동 속에서는 이러한 지리학의 개념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대학에 지리학과가 설치되면서, 지리학은 고유한 연구대상과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는 인접 학문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 대처해야 했다. 그래서 '일반지구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의 폭넓은 정의가 이미 1880년대에 와서 학리의 중대한 맹점으로 부상하였다. 지리학은 한편으로 피할 수 없는 복합성을 줄여 보편과학이라는 사고를 철회해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독자적인 연구프로그램으로서 복합성을 오히려 제고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었다(Wardenga, 2001).

이처럼 지리학을 대학에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독일 지리학의 방향설정을 둘러싼 헤게모니 쟁투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지향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그 하나는 후에 이른바 '관찰적'(beobachtend) 지리학으로 지칭된 방향으로, 지리학을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다듬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독창적인 야외연구, 특히 1880년대 이후 지리학 내의 주요 분야로 부상한 지형학(넓게는 자연지리학)의 틀 속에서 추구한 지향이었다. 다른 하나는 '관념적'(ideell) 또는 '구성적'(konstruktiv) 지리학으로서, 그 초점은 관찰이 아닌, 이미 출간된 지리학 내외의 자료를 종합하여 지지적 記述(Darstellung)로 가공하는데 맞추어진 지향이었다.

이러한 점은 독일 강단지리학에서 1880년대 중반 이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리학의 방법론적 성찰에 주도적 역할을 한 리히트호펜의 논의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그의 유명한 라이프치히(Leipzig) 대학 교수 취임 연설인 '현대 지리학의 과제와 방법'에서 지리학 일반의 방법론과 지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평가에 대단히 중요한 논점을 제시하였다. 리히트호펜은 발견의 시대를 거치면서 지리학에 부여된 과제는 세계 각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가공하고, 점점 증가하는 다양성 속에서 이를 통일적이고 과학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학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리학의 대상을 자료에 의거하여 구분해야 한다는 많은 논자들과는 달리, '지표면'(Erdoberflaeche)을 지리학의 중심적 연구대상으로 삼고 지리학을 "지표면과 그와 인과적으로 관련된 사물과 현상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하였다(Beck, 1992).

이렇듯 리히트호펜은 지리학의 기본 과제로 우선 각종 계측 및 관찰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체

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정리체계를 도출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지식을 지표공간에 의거하여 나누고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거나 기술하는 '특수지리학'(Specielle Geographie)이라는 방법론을 통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지식을 대상과 현상에 따라 구분하고 '일반지리학'(Allgemeine Geographie)과의 결합과 결과 도출을 통하여 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두 관점의 결합으로부터 제3의 고찰방법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는 곧 코롤로기(Chorologie)로서 지표공간상에서 관찰 가능한 현상들을 일정한 군집으로 정리하고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Birkenhauer, 2001).

비록 리히트호펜은 특수지리학에 존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에게 우선 코로그라피(Chorographie)로서 특수지리학은 넓은 의미에서 개별 지표공간과 관련된 모든 사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지 않는 하나의 기술일 뿐이었으며, 그런 한에 있어 교육적이고 백과사전적이며 그 자체로서는 단조로운 것으로 보았다. 그는 그 의미가 제고될 수 있을 경우는 특수지리학이 일반지리학에 적용되는 분석적 연구에 기초한 방법론과 결합될 때라고 했다. 반면 그는 코롤로기(Chologogie)로서 특수지리학은 사상을 단순히 기록하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닌, 인과적이고 동태적인 계기를 도입함으로써 그것을 개별 지표공간의 견지에서 인과적 관련성에 의거하여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태적이고 인과적 계기에 대한 연구가 그의 지리학 구성체계에서는 일반지리학에 유보되어 있었다. 일반지리학은 보다 고차적이고 한층 포괄적인 그 무엇으로서 지리학의 진정한 연구 분야였던 반면, 특수지리학은 기술로서 크고 작은 지표공간에 한정되며, 지표공간을 그 속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견지에서 그리고 유효한 인과관계에 비추어 표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반지리학적 연구방법과 교육적 관점의 기술 및 대중화 방식 사이의 구분이 지리학자들의 의식 속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1880년대까지 지지는 자연과학적 방법론에 경도된 지리학 내에서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 지역지리학적 연구가 물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특수연구는 분명 예외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880년대 중반 이후 제2세대 지리학자들의 등장과 함께 지리학의 중점은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지지를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방법론적으로 그 평가를 제고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소장 지리학자들은 지지적 기술에 대해 리히트호펜이 제기한 회의론, 즉 어떤 장소에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적절히 서술할 수 없다는 생각에 더 이상 공감하지 않았다. 19세기 전반기에 태어난 지리학자들과 달리 이들은 자연과학적 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1880년대까지 쓰여 진 지지서의 편찬방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학 교수로 초빙되기까지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동안 이 세대의 지리학자들은 지지적 텍스트를 집필하는 것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생활비를 조달하였다. 왜냐하면 지구의 학술적 탐색에 관한 서적들은 귀족이나 교양 계층을 넘어서서 일반인을 포함한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행문, 자연과 인간에 관한 스케치, 지역 모노그래프(monograph)를 포괄하는 지지서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다.

독일에서는 1880년대 말 이후 유럽의 주변부나 해외를 대상으로 한 탐험 및 관찰여행이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한편으로 구체적인 여행일정이나 특정한 탐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보고문이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미 규칙적으로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여행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지형 등에 관한 특수한 연구결과들은 학술 모노그래프로 편집되었다. 모노그래프에 관한 작업과 함께 종종 대중잡지를 위한 수많은 지지적 논술들이 쓰여 졌는데, 이들 논술은 나중에 정리되어 여행 모노그래프로 재출간되었다. 사실 분석적-코롤로기적 특수연구와 코로그라피적 지지적 기술의 혼용은 젊은 세대의 지리학자들이 리히트호펜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 것, 곧 다양한 척도에서 복합적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것을 완수한 것으로 본, 그리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지지기술을 행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전제조건이었다(Wardenga, 2001).

2) 코롤로기로서 지지기술에 대한 성찰

이런 맥락에서 1890년대에 제2세대 지리학자들 사이에는 코롤로기적 의미에서 지지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우선 지지에서 항상 우선 행해지는 사상적-계통적 자료 분류를 비판하고, 이 대신에 보다 폭넓고 일관된 지역화(즉, 지역구분) 작업을 추구하였다. 이 지역화는 공간의 독자적 특성과 다양성을 그 속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포함하여 해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립손(Philippson)과 헤트너(Hettner)에 의해 총 50권으로 출간하기로 한 지지총서가 구상되는데, 물론 이는 기획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출간되어 있던 시버스(Wilhelm Sievers)의 지지서들은 당시 시대에 적합한 자료구분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지기술에 표준적 척도가 되고 있었다.[3] 이는 전체 지역을 일반적인, 지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술한 후 지역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역화에서는 개별 지역 또는 경관을 사례로 지리요소의 복합적 상호 관련성을 밝혀내고자 시도하였다.

그런데 이론과 실제는 크게 동떨어져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련의 논문을 통하여 코롤로기적으로 구성된 지리학의 방법론적 기초를 논의한 헤트너와 같은 이론가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물론 1907년에 발간된 헤트너의 '유럽'(Europa) 지지서는 개별 사상의 분류체계와 기술에 있어 자신의 방법론에 관한 논문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규정한 기본 원리와 정확히 부합하였다. 예를 들어 대륙에 관한 지리요소에 의거하여 구분된 개관에서는 개별 대(大)공간에 대해 다시금 지리요소에 의거하여 구분한 기술을 따르고 있는데, 이 기술에는 개별 경관의 특성과 지역성이 언급되었다. 헤트너의 테제가 말하듯이 우선 이러한 비교적 큰 척도에서는 사상의 상호 관련성이 인과적으로 밝혀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에 상응하는, 종종 2, 3페이지에 불과한 짧은 장을 살펴보면, 역사적 개별성의 삽입을 통해 때때로 느슨한,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가적인 기술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리히트호펜은 기술의 문제로 다룬 지지를 조사연구와 결부된 일반지리학 뒤에 분명히 자리 매김하고 있는 반면, 지지에 대한 헤트너의 입장은 오랫동안 불명료한 채로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방법론적 논술은 일반지리학적 연구의 이론으로서도 지지기술의 이론으로서도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방법론적 논술은 자신이 계획한 지리학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교과 지침서를 위한 논리적인 선행 작업을 행하고, 그에 따라 기술과 관련된 지리학 분야의 계통체계를 고찰하고자 한 목적의 보조물에 불과하였다(Wardenga, 1995).

지지에 대한 평가가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점차 제고되면서, 지지는 분명 연구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 일반지리학과 동등한 분야로 파악되었다. 교육적이고 대중적이며 기술과 결부된 측면이 이 시기에는 아직 지지의 본질적 문제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 당시 대학의 지리학자들은 교사 양성에 힘을 쏟았으며, 지지를 중심으로 한 학교의 지리교과과정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지지는 여전히 교양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들로 인하여 개관적 지지서들은 커다란 사업거리였을 뿐 아니라, 박봉에 시달린 대학 교수들에게는 봉급 외의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에서 설명한 시대상황에서 매우 포괄적인 개관적 지지서를 넘어서서 좀더 분화된, 하지만 폭넓은 독자층을 겨냥한 지지서가 개발되고 있었다. 게다가 대학 교수들은 모노그래프로서 지지연구를 대량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 지지서로서는 리히트호펜의 '산둥과 그 관문항 키아초우'(Schantung und seine Eingangspforte Kiautschou, 1898)를 비롯하여 라첼의 '독일'(Deutschland, 1898), 헤트너의 '유럽의 러시아'(Europaeische Russland, 1905), 파사르게(Passarge)의 '남아프리카'(Sued-Afrika, 1908), 그리고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른 필립손의 '지중해지역'(Mittelmeergebiet, 1904) 등이 있었다. 이들 논저는 독창적인 연구결과를 대중화시킨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파르취(Joseph Partsch)의 모범을 따르고 있었다. 그의 두 권으로 된 '슐레지엔'(Schlesien, 1896; 1911)은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뒷받침된 독일 민족에 관한 지지를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평가 절상된 지지서의 대표적 본보기였다.

그 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독일 지지 발전의 또 하나의 시기가 시작되는데, 이 시기의

지지연구의 특성은 점점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내용과 연관을 맺고, 이미 발표된 내용을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었다. 이미 개전과 함께 헤트너는 전공자들의 여론을 들어, 동료 학자들에게 지지연구를 통해 독일의 지리적 영역을, 나아가 독일 민족의 계몽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그가 요청한 정치지리학적, 경제지리학적, 그리고 군사지리학적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학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집필되고 나중에 부분적으로 증보된 戰場에 관한 논저에서는 지형학적 접근이 여전히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보다 큰 분량의 모노그래프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예를 들어 1915년에 출간된 '터키제국'(Das tuerkische Reich)에 관한 필립손의 연구는 자연지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요소들을 방법론적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종합한 저서로 평가받았다. 또한 영국(1915)과 러시아(1916)에 관한 헤트너의 연구도 인문지리학적 문제로의 초점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지지의 확대라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른바 '지지위원회'(Landeskundliche Kommissionen)였는데,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발칸, 루마니아, 알바니아, 그리고 폴란드 등지에 설치되었다. 밖으로는 순수한 학술연구 단체로 위장되었으나, 이 위원회들은 이미 시작된 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전후에 있을 평화협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지적 현상 파악을 추진하고 있었다. 특히 종전까지 존속한 바르샤바 총참모부 산하의 지지위원회는 막대한 출판물을 내놓았는데, 1917년에 출간되어 큰 반향을 일으킨 '폴란드 편람'(Handbuch von Polen) 외에 10권의 모노그래프를 포함한 총 44권의 지지서를 간행하였다. 위원회의 성공에 따라 노이만(Ludwig Neumann)의 제안, 즉 독일의 지지연구를 '지지청'(Amt fuer Landeskunde)의 설치를 통해 조직적으로 추진하자는 생각은 전적으로 공감을 얻지 못했지만, 전쟁의 와중에서 얻은 새로운 경험으로 지지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 것일 뿐 아니라, 실천적이고 정치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리학자들 속에 자리 잡았다(Wardenga, 1999).

이러한 측면은 20세기 초 '중부유럽'(Mitteleuropa)이라는 개념을 둘러싼 논쟁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다. 비록 지리학자들은 지역구분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대륙적 또는 해양-식민지적 팽창과 관련한 독일 제국의 권리를 정당화하는데 자연지리학적 논거를 주로 제시하였지만, 전쟁을 거치는 동안 이러한 지역구분을 위한 시도는 점차 인문지리학적 사고패턴에 기초하게 되었다. 헤트너는 전전까지만 해도 인문지리학을 자연환경에서 출발하여 이로부터 받는 직·간접인 영향을 분석하는 분야 정도로 정의하였으나, 이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 분야를 단순히 인과관계에 입각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한 전쟁목표를 둘러싼 논의에서 지지적 기술 관점의 하나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었다. 이처럼 문제제기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지리학 체계에 대한 개념도 변하기 시작했다. 즉 '지구와 생활'(Erde und Leben)이라는 옛 논제는 '인간과 자연'(Mensch und Natur)이라는 새로운 논제로 대체되었으며, 따라서 독일 지리학 내에서 경관개념의 원용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의 하나가 형성되고 있었다.

3. 20세기 초 독일 지역지리학의 확립과 방법론

1) 지지의 성격과 발전 동향

20세기 초반,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Zwischenkriegszeit)는 독일 지리학의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였다. 그리고 지리학사에 있어 그 어떤 시기보다도 지지라는 패러다임으로 성격 지워진 시기였다. 이 시기에 역시 독일제국 시대로부터 연유한 연구 개념이자 전통인 지지가 강단지리학에서 헤게모니를 갖고 관철되기 시작한 경관개념을 배경으로 하여, 1930년대 이래 지리학의 최종 목표이자 종착점으로 확립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들어 지역지리학의 발달에 있어 특히 주목되는 양상은, 지지를 내용으로 한 연구 및 탐험 모노그래프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이를 대신하여 여러 모로 잘 다듬어진 지지서의 형태로 학문적 연구 성과를 펴낸 것이고 할 수 있다. 자연히

1920년대를 거치면서 앞선 시대에 있어 지지를 중요하게 규정한 대중적 성격은 점차 옅어지고 있었다.[4] 이와 더불어 이미 1920년대 초반에 지지서의 초점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과 달리 인문지리학적 측면을 뚜렷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따른 정치 및 경제지리학적 문제제기에 대한 관심사로 19세기 말에 드물게 다루어진 인문지리학적 관점에 입각한 지지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Schelhaas et al., 2001).[5]

또한 독일을 지지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에는 1920년대의 제한된 해외여행으로 말미암아 국토나 향토가 지리학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특히 당시 독일 민족과 그 문화권에 관한 연구를 강조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국가경계를 넘어 독일 민족의 문화권을 기술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크랩스(Norbert Krebs)의 '독일지지'(Landeskunde von Deutschland, 1931)였다. 이미 1920년대 초에 출간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1930년대에는 크렙스, 브란트(Brandt), 쉬레퍼(Schrepfer) 등이 각각 집필한 남서부, 북동부, 북서부 지역을 다룬 교과서로 구상한 논저들이 출간되었다. 파사르게의 '독일의 경관'(Die deutsche Landschaft, 1936)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저서로서, 이는 '청소년들의 정신을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의 육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격정적으로 저술된 책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리학의 나치정책의 이론과 긴밀한 연계를 언급할 때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바이마르공화국에서 급증한 대학생수와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의 지지서를 선호하는 독서시장의 여건 변화는 지리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고려해야 할 조건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도 예를 들어 바그너의 '일반유럽지지'(Allgemeine Laenderkunde von Europa, 1915)가 수정판으로 나왔다. 마이나르두스(Meinardus)의 1928년부터 여러 권으로 출간된 '일반세계지지'(Allgemeine Laenderkunde der Erdteile)가 있었는데, 이는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 배열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반해 전혀 다른 형식을 갖춘 헤트너의 두 권으로 된 '지지원론'(Grundzuege der Laenderkunde(1923; 1924)은 부피는 작았지만 자료를 개관할 수 있는 교재로 구상한 것으로서, 인플레이션과 대공황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러한 대중적 그리고 교육적 내용을 담은 논저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과학적 기술로서 때로는 사치스러울 정도로 장정이 잘된 편람서의 일부로 출간된 지지서였다. 독일제국 시대에 주로 시버스(Sievers)류의 지지로 대표되는 이러한 형태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에 펭크(Albrecht Penck)에 의해 1913년 이래 출간된 '지지편람 총서'(Bibliothek laenderkundlicher Handbuecher)와 경쟁관계에 있었다. 시버스류의 포괄적인 지지와 달리 펭크류의 '지지편람 총서'는 짧은 시간에 학술적으로 큰 호평을 받았는데, 물론 단 한 권밖에 출간되지 않았다. 이후 이러한 유형의 지지서는 꾸준히 발표되었는데, 그야말로 독일 지리학사에 있어 지지연구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논저들이 출간되었다. 대표적으로 크렙스의 '오스트리아 알프스지지'(Laenderkunde der oesterrechischen Alpen, 1923)와 '동부 알프스와 현대 오스트리아'(Die Ostalpen und das heutige Oesterreich, 1928), 마하체크(F. Machatschek)의 '러시아 투르크스탄'(Russisch-Turkestan, 1927)과 '수데텐'(Sudeten, 1927), 그라트만(Robert Gradmann)의 '남부 독일'(Sued-Deutschland, 1931), 크레트너의 '샴 - 타이국'(Siam, das Land Tai, 1935), 크렙스의 '인도와 실론'(Vorderindien und Ceylon, 1939) 등을 들 수 있다.

펭크류의 '지지편람 총서'는 그 구성 측면에서 비교적 한정된 분야에 관한 것이라면,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에 들어와서 그 당시까지 전혀 시도된 바가 없었던 두 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 그 하나는 1924년부터 켄데(Oskar Kende)가 편집·발간한 '지리학 백과사전'(Enzyklopaedie der Erdkunde)은 일반 지리학 뿐 아니라 지지와도 관련된 동시대의 지리학적 지식을 전체적으로 개설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도의 기획은 기대와 달리 완성되지 못했지만, 일부 개별 논저들은 남아 있다.[6] 또 하나는 1924년부터 헤트너가 '지리과학 편람'(Handbuch der Geographischen Wissenschaft)이라는 타이틀로 15권으로 편찬하려고 기획한 것이었다. 이는 헤트너와 출판사 사이의 갈등으로 결

국 실현되지 못했지만, 슈미텐너(Heinrich Schmittenner), 메츠, 크레트너, 토르베케, 바이벨, 투커만, 그리고 베어만(Walther Wehrmann) 등 당시 저명한 독일어권 지리학자들이 집필자로 대거 참여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1930년대에는 클루테(Klute)를 편집자로 하여 발간된 편람서(Handbuch)도 당시 젊은 지리학자 세대(제3세대)의 발표장이 되었다. 폴츠(Wilhelm Volz), 프리데릭센(Max Friederichsen), 쉬레퍼(Hans Schrepfer), 마카체크(Fritz Machatschek), 마울(Otto Maul), 드리갈스키(Erich von Drygalski)를 비롯하여 나중에 널리 알려진 지리학자들, 예를 들어 라우텐자흐(Hermann Lautensach - 스페인과 포르투갈), 쇼이(Erwin Scheu - 프랑스), 블뤼트겐(Joachim Bluethgen -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하르트케(Wolfgang Hartke - 포메른, 자유제국도시 단치히, 동프로이센), 크라우스(Theodor Kraus - 라인의 쉬퍼산지, 라인하류의 만, 루르지방), 라인하르트(Rudolf Reinhard - 오버작센), 펜(Hans Fehn - 중남부 독일), 비스만(Hermann von Wissmann - 아라비아), 크레트너(Wilhelm Credner - 인도차이나), 트롤(Carl Troll - 열대 안데스 등) 등이 참여하였다(Wardenga, 1995).

서로 다른 출판 형태와는 상관없이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에 나온 지지서들은 그 이전시대와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이미 독일제국 시대에 존재했던 경향, 즉 유럽과 세계에 대한 독일 민족의 관심사와 이해를 학술적 조언과 민족의 계몽이라는 정형화된 목적에 따라 다루어진 지역 기술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와 불공정하다고 느낀 베르사유 평화협정으로 인하여 더욱 더 강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지서에 대한 시장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특히 1920년대 이후의 일부 대중적 성격의 지지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었다. 둘째로, 자연과학이라는 방법론에 따라 추구한 지지와 결별하는 경향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었다. 이렇듯 지표면이라는 개념이 지지기술에 있어 중심적 의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정치지리학과 경제지리학의 평가절상으로 인하여 공간을 조형하는 인간의 제반 활동이 점점 더 중요한 고찰대상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지적 관점의 역사화 경향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물론 그 뿌리는 독일제국 시대의 지리학에서 이미 존재한 역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셋째로는 1920년대 초반 이래 대학의 지리학은 학교 지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시대의 독특한 지적 환경 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관개념을 대폭 받아들이고 있었다. 인문적 현상과 역사적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학문 전(前)단계의, 미학적 특성이 뚜렷한 언어 환경을 따라 경관을 과학적, 지리학적 개념으로 규정하려는 일련의 방법론적 논문들이 나오고 있었다. 이때 경관은 공간개체(Raumindividium), 조화된 통일체, 지표상의 총체적 상호 관련성, 유기체, 전체라고 하는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원용되는 개념 영역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리학적 직관에 보다 큰 의의를 부여하고, 과학적 분석보다는 생활을 따사롭게 보듬는 방식의 설명을 우선시하고, 조화와 리듬과 같은 미적 범주들을 동원하여 기술하는 경관의 체험적 직접성을 고찰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었다. 결국 현상학적 본질 검토를 장려하는 방향에서 인과적-기계론적 기술의 전통과 결별하는 새로운 양식의 지역기술이 요청되고 있었다(Wardenga, 2001).

2) 지지 연구방법론을 둘러싼 논쟁

경관개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대학 지리학의 변화라는 흐름 속에서 1920년대 말 이른바 '지지도식'(地誌圖式, Laenderkundliches Schema)[7]의 기능과 성격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당시 지지도식은 18세기 이래 사용되어온 지지기술의 핵심적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핵심은 지지기술에 있어 지역의 위치·형상·크기, 지질과 지형, 기후, 수문, 식물, 동물, 인간세계, 취락, 경제, 교통, 언어·종교, 국가관계 등의 순서를 확고히 견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Stewig, 1990). 이미 신구 지리학자들 간의 세대갈등과 동시에 초중등학교의 지리학과 대학의 지리학 간의 권력투쟁의 성격이 투영된 논쟁에서 두 가지 결코 공약수를 도출할 수 없는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었다.

당시 많은 소장 지리학자들과 학문정치에 적극 참여한 학교 현장의 지리학자들, 즉 지리교사들의

대부분은 지지도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지지도식은 기술방식으로서 더 이상 현실적 적실성도 없다고 평가하였다. 지지도식은 지역의 진정한 내적 인과성을 그려 낼 수 없으며, 엄정한 과학적 요구에도 충분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지지도식은 한편으로 자연지리적 관계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자연과 단절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진부한 것들을 전달하는데 몰두하고, 역사적인 사실관계에 너무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인 경관묘사에 인색하다는 것 등의 비판을 받았다. 결국 지지도식의 대표적 논자들은 완고한 도식주의에 얽매여 지리학적 논제를 과학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지도식은 귀납적으로 설정된 접근방법이므로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위에서 언급한 순서에 따라 고립적으로 기술된 지리적 제 요인을 상호 연계시키고 지역의 공간적 속성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종합이 요구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Stewig, 1979).[8]

특히 슈페트만(Spethmann)은 헤트너의 지지도식을 정태적이라고 혹평하고, 자신의 대안적인 방법론에 입각한 지지를 '동태적 지지'(dynamische Laenderkunde)[9]라고 일컬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지지도식에서는 논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리적 제 요소의 공간적 형상에 대한 계기적(순차적) 기술을 전체상(Gesamtbild)으로 요약하는 것이 전적으로 독자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이에 반해 동태적 지지는 이미 책의 첫 장에서 지역의 본질을 독자들에게 내세웠다. 슈페트만은 지지기술 방법에 관한 설명에서 지역 또는 경관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지배적인 지리적 요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orsdorf, 1999). 이에 따라 지지기술에서 일정한 지표공간의 현재상(像)에서 출발하고 이를 다양한 힘(營力)의 동태적 작용구조로 해명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힘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선 넓은 의미의 인간의 경제생활을 거론하였다. 다시 말해 거리를 축소시키고 농경지와 산업지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술과 경관을 변화시키는 자본흐름, 그리고 지역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관세와 무역협정 등이었다. (경제)위기와 경기순환도 이 힘에 해당하는데, 이는 종교, 정치, 문화처럼 경관의 변모에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순수하게 인간에 연유하는, 부분적으로 點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線의 형태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面의 형태로 작용하는 요인 이외에도 기후와 식생 그리고 지형도 이미 말한 점진적이고 면의 형태로 작용하며 보편적으로 분포하는 힘들이었다.

이미 대학 및 학계에서 기반이 확고했던 헤트너와 그라트만, 그리고 필립손과 같은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비판과 대안적 논의를 끝내 용인하지 않았다. 위에서 요구한 것처럼 지지기술에서 과거를 현재라는 시각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더군다나 기후와 식생 그리고 지형을 힘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되풀이하여 다양한 자연영역 사이에 인과 고리로 이해된 상호 관련성을 묘사하려는 시도가 지지도식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언어적인, 단어의 순차적 배열에 기초한 기술로는 공간적으로 병존하는 복잡다단한 사상들의 상호 관련성을 그려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지도식에서 내포되어 있는 순수한 형식적인 타개책은 앞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인식을 차후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전제)조건으로서 설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지지도식은 결코 직접적인 사실관계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술의 합목적적인 형식일 뿐이며, 따라서 기술의 문제점은 될 수 있으나 인식론적 문제점으로서는 논의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19세기 말 독일제국 시대로부터 연유하는 한편으로 연구와 다른 한편으로 기술 사이의 중대한 분화가 1930년대에 들어서서 점차 희미해지고, 총체론인 경관개념이 독일 지리학 내에서 중심적 접근방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10] 따라서 기술의 문제는 점차 연구의 문제로 변용되어 갔는데, 우리는 이점은 누구보다도 지리적 형태변이론(Geographische Formenwandellehre)을 통해 독특한 지지 방법론을 전개한 라우텐자흐를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1926년만 해도 라우텐자흐는 지리학 방법론에 관한 논의에서 지리학을 우선 지극히 전통적인 코롤로기적 학문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지표면의 현상형태를 특정 장소에서의 동시적인 존재에 비

추어 고찰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과거 지리학의 중심 개념이었던 지표면을 새로운 중심개념인 '경관'으로 대체하고, 지리학의 본질은 경관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라우텐자흐는 특히 경관을 지표면상의 크고 작은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다른 지표공간과는 독특한 속성과 개성적인 형태에 의해 구별되며, 그 독특한 속성은 지표면의 지형, 기후, 하천, 식물, 그리고 육체적·심리적 특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현상뿐 아니라, 종교와 정치, 경제, 교통, 그리고 건축(취락)기술적 측면에서 비추어 본 인간의 목적의식적 활동형태에 의해 표현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기술의 개념과 연구의 개념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 때 지리학의 연구 활동은 첫째 경관을 분류하고, 둘째 개별 요소를 분석적으로 기술하고, 셋째 자연지리학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의 원리와 인문지리학 분야에서 말하는 이해 가능한 동기에 의거하여 발생론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 넷째 종합적 고찰 또는 설명적 종합을 행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했다(Wardenga, 2001).

그 후 라우텐자흐는 지리학을 지표면과 이와 인과적인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 사상에 관한 학문이라는 리히트호펜의 개념규정을 부정하였다. 이 대신에 근대 지리학은 전체로서 지구를 구성하는 육지 및 해양 공간의 개성적인 성격에 관한 학문이라는 정의를 제시하였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개성 기술적인 지지와 법칙 추구적인 일반지리학 사이의 구분을 원용하여 라우텐자흐는 두 가지 지리학 분야를 비록 서로 연계된 학문분야로 설명하지만, 일반지리학을 지지 밑에 배치하였다. 이때 그는 지지를 헤트너와 마찬가지로 법칙 추구적 분류체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헤트너처럼 기술의 문제가 아닌 연구의 문제로 파악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지지연구는 경관학적 방법에서 요청하고 있는 법칙 추구적인 접근에 입각한 과학적 지역지리학을 추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우텐자흐의 방법론의 주된 목표는 결국 지표공간을 포괄하는 경관체계(Landschaftssystematik)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4. 결 론

19세기 중반 이후 독일은 물론이고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 서구의 주요 선진제국에서 지리학은 대학에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인접 학문분야의 부당한 요구와 비판, 방해 속에서 나름의 연구대상과 방법론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자연히 많은 지리학자들은 지리학에 대한 개념규정을 통한 내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정교한 학리적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19세기를 거치면서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지표공간의 자연현상과 다양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에 관해 확대된 탐험 및 여행 관찰의 결과로, 1850년대 이후 통일된 형태의 자료기록 및 정리 작업이 문제되면서, 지리학은 과거 '일반 지구과학'이라는 복합적 학리에서 탈피하여 보다 견고한 학문체계를 정립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지리학은 '지지'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학리를 가다듬는 동시에 놀라운 발전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 지역지리학의 성립과 주요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이와 결부된 방법론적 쟁점들을 학사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지의 성립배경과 전통 지리학의 방법론적 체계에서의 위상변화, 지지를 중심으로 한 지리학 패러다임의 확립에 있어 방법론적 쟁점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독일 지역지리학의 성립은 이미 19세기 후반 독일제국 시대에 존재하였던 연구와 연구결과의 대중화 사이의 분화라는 맥락에서 후자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히트호펜의 지리학 방법론에 관한 논의에서 특수지리학으로 규정된 지지는 그 후 새로운 세대의 지리학 연구자들의 등장과 함께 연구의 함의를 포괄하는 과학적 지지로 점차 변모하였다. 이에 따라 지리학의 동의어가 된 지지는 과학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어야만 했는데, 이는 1920년대 말 이후 신칸트주의적 학문이론의 다양한 원용과 함께 주로 개성기술적 연구 복합체로 평가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와중에서 독일의 지지는 전통적인 자연지리학적 접근방법에서 점차 벗어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내용의 인문지리학적 성격을 강화시켜 나갔으며, 특히 독일의 국토와 그 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민족 계몽적 활용에 부분적으로 초점을 맞추

기도 했다.

이러한 이론적, 방법론적 성찰과는 별도로 실천적 지지기술 차원에서는 역시 독일제국 시대로부터 발달한 대중적 성격을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각종 지지서를 둘러싼 광범위한 일반 독자층의 형성은 이상과 같은 방법론적 정교화와는 무관하게 지리학 내에 지지의 지속적인 강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지지의 대중적 성격은 지리학자들의 개관적인 지지 총서 및 편람의 출판에 적극적인 참여뿐 아니라, 폭넓은 독자층을 위해 구상된,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집필된 잘 장정된 편람서의 양적 증가를 낳고 있었다.

특히 제1, 2차 대전 세계 대전 사이의 시기는 한편으로 독일의 지지학의 전성기로서, 다양한 형태의 지지서가 출간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인 지지서술의 방법론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전개된 시기로 기록되고 있었다. 학계 일각에서 지지 도식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지지기술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안적 지지기술 방식에 대한 모색과 아울러 일련의 비교 지지적 특성을 가진 지닌 경관개념을 바탕으로 한 방법론으로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전 독일 지역지리학의 발전 궤적은 근대 지리학의 발달과정에 있어 지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 지리학의 핵심적 패러다임의 정립과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이미 1920, 30년대에 대두한 지리도식을 둘러싼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지리학 패러다임과 방법론의 전향적인 탐색과 논의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註

1)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지(지역지리학)를 란데스쿤데(Landeskunde) 또는 랜더쿤데(Laenderkunde)로 표현해 왔다. 전자는 국가 단위내 지지, 즉 특정 지방 내지 지방에 대한 지지를, 후자는 국가 이상의 지지, 즉 특정 국가나 문화권 또는 대륙에 대한 지지를 지칭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들 용어보다 영어식 또는 프랑스식의 레기오날레 게오그라피(Regionale Geographie)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이 글의 내용 중 적잖은 부분은 바르덴가(Wardenga, 1995; 1999; 2001)의 최근 연구 성과에 크게 의존하였음을 밝혀둔다.

3) 시버스(Sievers)가 데케르트(E. Deckert)와 퀴크탈(W. Kueckthal)과 공동으로 저술한 『아메리카』(Amerika, 1894), 그리고 시버스의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세아니아』(Australien und Ozeanian, 1895)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시버스가 편집한 『일반지지』(Allgemeine Laenderkunde, 1901-1906) 등이 있다.

4) 대표적 지지서로서는 마울(Otto Maul)의 『지중해 그리스지방』(Griechische Mittelmeergebiet, 1922), 토르베케(Franz Thorbecke)의 『아프리카』(Afrika, 1929), 죌히(Johann Soelch)의 『동부 알프스』(Die Ostalpen, 1930), 자퍼(Karl Sapper)의 『아메리카』(Amerika, 1923), 지거(Robert Sieger)의 『알프스』(Die Alpen, 1923), 예거(Fritz Jaeger)의 『아프리카』(Afrika, 1925), 마하체크(Fritz Machatschek)의 『체코슬로바키아』(Tschechoslowakei, 1928), 토르베커의 『열대 아프리카』(Das tropische Afrika, 1928), 파사르게의 『이집트와 아랍 오리엔트』(Aegypten und den arabischen Orient, 1931) 등을 들 수 있다.

5) 이러한 유형의 지지서로서는 마거(Fritz Mager)의 『쿠르란트』(Kurland, 1920)와 하쎄르트(Kurt Hassert)의 『동프로이센』(Ostpreussen, 1923), 하씽어(Hassinger)의 『체코슬로바키아』(Tschechoslowakei, 1925), 메츠(Metz)의 『폴란드』(Polen, 1925), 분더리히(Wunderlich)의 『오버라인란트』(Oberrheinlande, 1932), 되렌하우스(Doerrenhaus)의 『남부 티롤』(Suedtirol, 1933) 등을 들 수 있다.

6) 지지와 관련된 논저로서는 마하체크의 『중부유럽지지』(Laenderkunde von Mitteleuropa, 1925)와 『전체로서 본 유럽』(Europa als Ganz, 1929), 브라운(Braun)의 『북부유럽』(Nordeuropa, 1926), 모셀레(Moschele)의 『브리튼제도 지지』(Landeskunde der Britischen Inseln, 1925), 마울의 『남부유럽지지』(Laenderkunde von Suedeuropa, 1929), 투커만(Tuckermann)의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지』(Laenderkunde der Niederlande und Belgien, 1931), 할텐베르거(Haltenberger)의 『발틱제국』(Die Baltischen Leander, 1929), 쉬미더(Schmieder)의 3부작인 『아메리카지지』(Laenderkunde von Amerika, 1932; 1933; 1934), 가이슬러(Geisler)의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세아니아』(Australien und Ozeanien, 1939) 등이 있다.

7) 보통 '헤트너 도식'으로도 불리어지는데, 무엇보다도 헤트너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되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트너 이전에 이미 이러한 지지기술 방식은 '오직 자연에 맞춘 구분'(allein naturgemaesse Einteilung)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다.

8) 하지만 지지도식에 의거한 지지기술도 나름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지지도식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며, 서로 상이한 지역을 비교하는데 대단히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얽매이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따라서 오늘날 지지도식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역지리학적 논저와 답사 준비, 지도해석 등의 작업에 응용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

지서, 사전의 항목, 여행서의 일반 부분에 기본 틀로서 활용되고 있다. 지지도식은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않고 서로 다른 공간을 다룸에 있어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지닌, 지지적 기술을 간단하고도 손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기도 하다.

9) 지지도식에 입각한 지지 기술이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듯이, 동태적 지지도 단점을 갖고 있다. 왜 특정한 지리적 요소가 곧 지배적 요소인지에 대해 종종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고, 또한 모든 지표공간이 이러한 개별 요인의 지배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할 때, 지역을 서로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이 뿐만 아니라 동태적 방법론은 결정론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는데,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단일 인과론에 입각하여 전체 공간적 형상, 다시 말해 전체적인 지리적 본질을 유일한 지배적인 지리적 요인에 소급할 때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해석학적 방법은 서로 다른 해석을 허용함으로써, 지지 기술이 대단히 주관적으로 윤색될 수 있다. 결국 한 지역의 지배적인 본질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종종 고정관념(stereotype)적 방식으로 경직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지기술에 동태적 방법론을 적용할 때, 주의를 요하는 바가 있다. 그것은 지배적인 지리적 요인의 선정에 있어 안전성과 이에 대한 다른 요인들과의 엄정한 연관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때 지역지리학적 연구가 요구하는 완결성도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이 성공할 때, 동태적 지지는 헤트너식의 도식에 의거한 지지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특수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 경관(학)적 접근방법은 넓은 의미에서 지역지리학의 하위분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테면 헤트너류의 전통 지지가 특정 지표공간, 즉 공간개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특이성에 초점을 맞추고 개성기술적(idiographisch) 방법을 강조하였다면, 경관학(Landschaftskunde)은 특정 지표공간의 유형적 성격(das Typische)을 밝혀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일반(계통)지리학과 마찬가지로 법칙추구적(nomothetisch) 방법을 앞세우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벡(Bobek) 등은 경관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지는 지리학적 (연구)대상을 개성기술적으로 고찰하고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다시 말해 공간과 시간에 있어 일회적인 것(Einmaliges)으로서 고찰하고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성적인, 개별적인 형상(Gestalt)으로 개념화된 지리학적 대상을 우리는 지역(Land)이라고 일컫는다. ..... 이에 반해 비교라는 토대 위에서 지표면의 일부를 유형화 또는 유형으로 정리하는 규범적인 고찰을 우리는 경관연구(Landschaftsforschung)라고 부른다"(Borsdorf, 1999: 61). 본 연구에서 언급된 파사르게와 크렙스 등의 지지는 이른바 '비교지지'(Vergleichende Laenderkunde)로 부를 수 있는데, 이는 경관유형의 전형적인 특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계통적 경관학의 선구 또는 경관학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연구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文 獻

권용우 · 안영진, 2001, 지리학사, 도서출판 한울, 서울.

권정화, 2001, 부분과 전체 : 근대 지역지리 방법론의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81-92.

김기혁, 2000, 인문지리학의 방법론, 제29차 세계지리학대회 조직위원회(편),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서울, 한울, 169-203.

김상빈, 2003, 동독지역의 지역지리 최근 연구동향 : 라이프찌히 지역지리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지리학연구 37(2), 91-105.

김상호, 1983, 지리학의 본질, 지리학논총, 10, 1-14.

김재완, 2000, 1920~1930년대 독일 지지학의 연구동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6(1), 69-89.

김종규, 2000, 한국지리와 해외지역 연구, 제29차 세계지리학대회 조직위원회(편),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한울, 서울, 274-297.

김종욱, 1994, 세계화를 위한 지역연구와 지역교육, 지리교육논집 32, 1-15.

박영한, 1987, 국학으로서의 지리학 : 현황과 방법의 모색, 지리학 35, 1-9.

박동원, 1978, 전후 독일의 지리철학, 지리학논총 5, 15-28.

서태열, 1989, 지역지리학 쟁점의 재조명 : 1950~1989, 지리교육논집 22, 80-91.

손명철(편역),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 새로운 지역지리 논의를 위하여, 명보출판사, 서울.

손명철, 2002, 지역연구, 대한민국학술원(편), 한국의 학술연구 - 인문지리학, 서울, 339-380.

안영진, 2002, 우리나라 지역지리학의 연구 추세와 전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184-198.

안영진(옮김), 2003, 사회공간론 : 사회지리학이론 발달사, 한울, 서울(Werlen, B., 2000, *Sozialgeographie - Eine Einfuehrung*, Haupt).

유우익,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 -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소고, 현대사회6(4), 246-263.

이전, 1998, 지리학과 해외지역연구, 이상섭 · 권태환(편), 한국의 지역연구 - 현황과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379-401.

이희연 · 최재헌,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4.

Bahrenberg, G., 1996, Die Laenderkunde im Paradigmenstreit um 1970,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41-54.

Beck, H., 1992, *Grossen Geographen - Pioniere, Aussenseiter, Gelehrte*, Berlin, Dietrich Riemer Verlag.

Birkenhauer, J., 2001, *Traditionslinien und Denkfiguren - Zur Ideengeschichte der sogenannten klassischen Geographie in Deutschland*,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Blotevogel, H.H., 1997, Aufgaben und Probleme der Regional Geographie Heute: Ueberlegungen zur Theorie der Landes- und Laenderkunde anlaesslich des Gruendungskonzepts des Instituts fuer Laenderkunde Leipzig,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11-40.

Borsdorf, A., 1999, *Geographisch denken und wissenschaftlich arbeiten*, Gotha, Klett-Perthes.

Gilbert, A., 1988, The New Regional Geography in English and French-speaking Countr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4), 208-228.

Hauer, J., and Hoekveld, G., 1993, Introduction : Why regional human geography, in Hauer, J., et al.(eds.), *Moving Regions(Nederlandse Geografische Studies* 161), 13-24.

Hoekveld, G., et al., 1994, Introduction : Patterns in regional geography, in Terlou, W. C.,(ed.), *Methodological Exercises in Regional Geography: France as a Example(Nederlandse Geografische Studies* 179), 3-10.

Holmen, H., 1995, Whats New and Whats Regional in the New Regional Geography, *Geografiska Annaler* 77B, 47-63.

Johnston, R.J., et al.(eds.), 1990, *Regional Geography - Current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 London, Routledge.

Pohl, J., 1996, Ansaetze zu einer Hermeneutischen Begruendung der Regionalen Geographie : Landes - und Laenderkunde als Erforschung regionaler Lebenspraxis?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73-92.

Pudup, M.B., 1988, Arguments within region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3), 369-390.

Schelhaas, B., and Hoensch, I., 2001, History of German Geography: Worldwide Reputation and Strategies of Nationalisation and Institutionalisation, in Dunbar, G. A.(ed.), *Geography : Discipline, Profession and Subject since 1870,* Kluwer Academic Publishers, 9-44.

Stewig, R., 1979, *Probleme der Laenderkund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Stewig, R., 1990, *Ueber das Verhaeltnis der Geographie zur Wirklichkeit und zu den Nachbarwissenschaften - eine Einfuehrung (Kieler Geographische Schriften* 76), Kiel.

Stiens, G., 1996, Die deutsche Landeskunde nach Emil Meynen und Versuch eines Ausblicks auf deren Zukunft,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93-113.

Wardenga, U., 1995, *Geographie als Chorologie - Zur Genese und Struktur von Alfred Hettners Konstrukt der Geographie (Erdlundliches Wissen 100)*, Stuttgart.

Wardenga, U., 1999, Constructing regional Knowledge in German Geography : The Central Commision on the Regional Geography of Germany, 1882-1941, in Buttimer, A., Brunn, S. D., and Wardenga, U.(eds.), *Text and Image - Social Construction of Regional Knowledges (Beitraege zur Regional Geographie 49)*, 78-84.

Wardenga, U., 2001, Theorie und Praxis der laenderkundlichen Forschung und Darstellung in Deutschland, in Grimm, F.-D. und Wardenga, U. (Hrsg.), *Zur Entwicklung des laenderlkundlichen Ansatzes(Beitraege zur Regionalen Geograophie* 53), 9-35.

Wirth, E., 1988, Overseas exploratory fieldwork - a specific tradition in Germany geography, in

Wirth, E.(ed.), *Germany Geographical Research Overseas,* Tuebingen, Institute for Scientific Co-operation, 7-25.

Wirth, E., 1998, Handlungstheorie als Koenigsweg einer modernen Regionalen Geographie? - Was 30 Jahre Diskussion um die Laenderlunde gebracht haben, *Geographische Rundschau* 51(1), 57-64.

Wolf, K., 1994, Der gesellschaftliche Auftrag der geographischen Landeskunde,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68(2), 361-367.

Wood, G., 1996, Regionale Geographie im Umbruch? - Ansaetze einer sozialwissenschaftlichen New Regional Geography im angelsaechsischen Sprachraum,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70(1), 55-72.

(접수 : 2004. 7. 20, 채택 : 2004. 8. 18)